

2019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1. 검토경과

-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 ☐ 제출일자 : 2019년 7월 5일
- ☐ 회부일자 : 2019년 7월 8일

2. 제안이유

- ☐ 출연기관 및 출연금액의 변경을 반영한 「2019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 2019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

(단위 : 백만원)

출 연 기 관	사 업 명	예 산 액 (한 도 액)		
		기정	변경	증감
계	8건	23,314	23,314	0
한 국 뇌 연 구 원	한국뇌연구원 2단계 및 실용화센터 건립	2,500	2,500	0
대구경북첨단의료 산 업 진 흥 재 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	7,000	7,000	0
국립 대구 과 학 관	국립대구과학관 운영 지원	2,414	2,414	0
	어린이과학관 확충 지원	1,800	1,800	0
	미래형자동차 전용관 조성	2,000	2,000	0
대 구 테 크 노 파 크	에너지신산업 펀드 조성	1,600	1,600	0
신 용 보 증 기 금	정부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 금융 지원에 따른 지방비 출연	6,000	4,000	△2,000
대구신용보증재단 (신 규 출 연)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 금융지원에 따른 지방비 출연(상생펀드)	0	2,000	2,000

※ 출연금액(한도액)은 변동없음

○ 출연목적 및 필요성

- 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은 지역 제조업에서 사업체수(12.1%), 종사자수(21%), 생산액(27.4%)을 차지하는 주력산업으로 지속 성장
-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완성차 생산량 감소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권 대출 중단 등 많은 어려움 발생
-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역 자동차부품기업 금융지원 지방비 출연 필요

○ 변경사유

- 신용보증기금 자금은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집행되므로 지자체 출연액과 상응하는 자금이 지역기업에 지원되지 않을 가능성 존재
-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매출액 감소로 신용도가 낮아진 지역 기업은 혜택을 보지 못하거나 수혜 금액 하락 (신청 포기 기업 대다수)
- 가용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하여 지역 자동차부품 협력 기업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 가능
- 신용등급이 낮아, *정부 주도 2P-CBO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기업 활력제고 및 경쟁력 강화

2)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자산담보부증권은 말하는데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함.

* 정부 P-CBO 개요

- 정부·지자체·완성차가 공동출연, 3년 이상 장기로 1조원 공급
- (출연) 정부 500억원, 지자체 약350억원, 완성차사 150억원
- (집행) 지역 신보를 통해 기업신청(중견기업은 SPC 본사 신청)
 - ※ 지원한도 : 중소기업 150억원, 중견기업 250억원
- (배분) 개별기업 심사 시, 지자체 매칭 비율에 따라 지자체별 배분
 - ※ 연말 각 지자체별 지원 실적을 집계하여 공유 예정

4. 검토의견

□ 출연 변경계획안은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등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연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 주요 검토사항

- 2019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당초 출연계획은, 한국뇌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국립대구과학관, 대구테크노파크, 신용보증기금 등 총 5개 기관, 7개 사업 233억 1,400만원이고,
- 이번 출연 변경계획안은,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금융지원에 따른 지방비 출연’에 대하여 기존 신용보증기금의 출연 한도액을 40억원으로 하향하고, 대구 신용보증재단에 추가로 20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총 출연금액(한도액)은 변동이 없음.

-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설립근거와 「대구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으므로 지방재정법상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기관임.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기존 신용보증기금 출연계획은 정부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완성차 경쟁력 약화에 따른 내수 부진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업계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지자체·완성차기업이 공동출연하여 자금을 지원하려는 것이고,

- 대구신용보증재단 신규 출연계획은 기존계획과 출연목적은 동일하나 대구광역시, 대구은행, 이래AMS 등 3개기관이 참여하여 지역밀착형 *상생펀드를 조성하여 지원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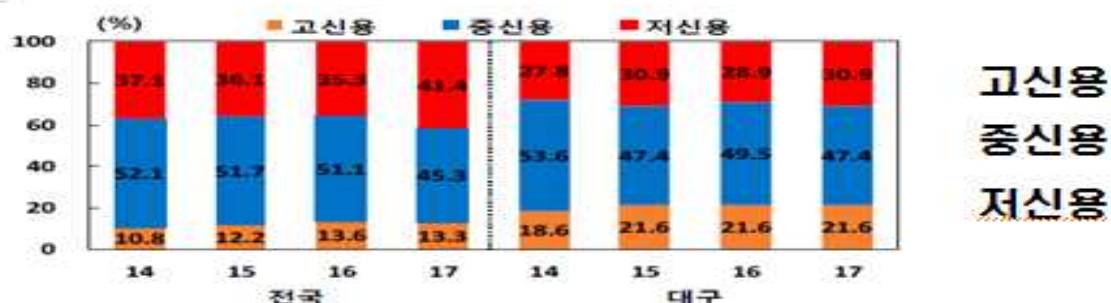
* 상생펀드 개요

- 참여기관 : 대구광역시, 대구은행, 이래AMS, 대구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 총 60억원(3개 기관 각 20억원 출연)
- 지원규모 : 최소 180억원 ~ 최대 300억원 규모
- 지원대상 : 지역 자동차부품산업분야 2, 3차 협력기업
- 주관금융기관 : (재)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
- 운용배수 : 3~5배 보증(출연기관 간 실행협약 체결시 보증비율 확정)

□ 검토결과

- 자동차생산은 여러 기술이 시스템적으로 통합되어 설계·가공·조립을 통해 많은 부품이 투입되기 때문에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완성업체 및 부품업체간 분업체계가 형성되어 있어 부품업체의 완성차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특히 지역부품업체들은 영세한 2·3차 협력업체가 대부분으로 최근 들어 재무상황이 악화되면서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였음.

<대구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신용등급별 비중>



- 당분간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영실적은 내수의 경우 소비심리 위축, 수입차 점유율 상승 등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수출도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업황개선이 제한될 것으로 보여,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으로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등급의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금융지원을 위한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대구시 출연금액이 타 시·도와 비교하여 가장 많으므로 출연한도를 조정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짐.

지자체	합계	대구	경남	충남	울산	충북	전북	경북	광주
출연액 (억원)	285	60	50	50	50	30	30	20	15

- 다만, 최근 이루어진 이래AMS 미래형 일자리 상생협약에 따라 상생펀드 조성을 위한 당초 출연 계획 변경으로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신용보증기금과 사업계획을 조율하고 대구 신용보증재단 출연관련 절차 및 협약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신규 출연기관(대구신용보증재단, 이래AMS, 대구은행)간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타당성 있는 실행 협약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